

■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2,13—53,12

13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송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14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15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 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 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53, 1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2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돌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3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4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5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6 우리는 모두 양 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7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8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 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9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10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11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12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뒤통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

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
-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
-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

■ 제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4,14-16; 5,7-9

형제 여러분, 14 우리에게서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15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16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5, 7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8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9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외칠 부분) (독서보다 수난 복음을 실어주는 것이 더 좋을지도)

(...) 13 ○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빠타라고 한다. 14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열두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시오.”

15 ○ 그러자 유대인들이 외쳤다.

◎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및 보편지향기도 : I, II, VI, IX, X (5개)

■십자가 보여주는 예식 (세번 반복)

사제가 '+ 보라, 십자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라고 외치면, 신자는 '◎ 모두 와서 경배하세!' 라고 크게 응답합니다.

■거룩한 십자가 경배 (봉헌 때처럼 나오셔서 십자가에 자유롭게 절)

■다함께 십자가 경배 찬미가를 바칩니다. (◎ 신자들 ○해설자)

◎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귀한 나무로다.

어떤숲도 이런싹과 잎과꽃을 못내리라.

귀한나무 귀한못에 귀한짐이 달렸도다.

○ 영광스런 이싸움을 소리높여 찬미하라.

십자가의 승리두고 개선노래 합창하세.

희생되신 구세주가 그승리를 이루셨네.

◎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귀한 나무로다.

어떤숲도 이런싹과 잎과꽃을 못내리라.

○ 원조들이 유혹받아 금한열매 먹었을때,

하느님은 동정하여 구원나무 정하시고,

나무에서 묵인죄악 나무로써 푸시었네.

◎ 귀한나무 귀한못에 귀한짐이 달렸도다.

○ 우리위한 구원활동 하느님의 계획대로,

반역자들 온갖음모 지혜롭게 이기시고,

원수이긴 그나무로 우리구원 이루셨네.

◎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귀한 나무로다.

어떤숲도 이런싹과 잎과꽃을 못내리라.

○ 성스러운 때가차서 성자탄생 하시었네.

성부께서 파견하신 창조주가 오시었네.

동정녀의 태중에서 사람으로 나시었네.

◎ 귀한나무 귀한못에 귀한짐이 달렸도다.

○ 외양간의 좁은구유 어린아기 울었도다.

성모님은 하느님을 보에싸서 누웠도다.

아기예수 손과발을 포대기로 감쌌도다.

◎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귀한 나무로다.

어떤숲도 이런싹과 잎과꽃을 못내리라.

○ 연세삼십 장성하여 예비하신 때가되니,

인류위해 수난고통 자원하여 받으시고,

어린양이 희생되어 십자가에 달리셨네.

◎ 귀한나무 귀한못에 귀한짐이 달렸도다.

○ 쓸개즙에 고통받고 가시뭇과 창에찔려,

고귀한몸 피가흘러 시냇물을 이루더니,

땅과바다 온세상을 깨끗하게 씻었도다.

◎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귀한 나무로다.

어떤숲도 이런싹과 잎과꽃을 못내리라.

- 높은나무 가지굽혀 단단한속 바꾼뒤에,
타고났던 딱딱함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곱디고운 줄기위에 높은임금 모시어라.
- ◎ 귀한나무 귀한못에 귀한짐이 달렸도다.
- 너만홀로 합당하게 영원보배 모셨으니,
세상파선 막아주는 우리위한 항구로다.
어린양이 흘린피로 거룩하게 물들었네.
- ◎ 믿음직한 십자나무 가장귀한 나무로다.
어떤숲도 이런싹과 잎과꽃을 못내리라.
- ◎ 성삼위의 높은은총 우리구해 지키시니,
성부성자 성령님은 같은영광 받으소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영원영광 받으소서. 아멘.

■ 주님의 기도 > 영성체 > 마침 기도. (안녕히 돌아 가십시오).

April 3, 2026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예(요한 13,1)

Jesus loved his own in the world
and he loved them to the end(Jn 13,1).

■ 전례 봉사자

| | 성금요일(4/3) | 부활 성야(4/4) | 부활 낮미사(4/5) |
|----|-----------|------------------------|-------------|
| 해설 | 최낙현 미카엘 | 정명호 미카엘 | 황현성 요셉 |
| 독서 | 정원준 최아영 | 이동현 유리나 곽동화 최지나 | 강웅일 강태순 |
| 복사 | 이하은 레베카 | 이하은 공지나 | 박한주 미카엘 |
| 반주 | 없음 | 공승윤 수산나 | 공승윤 수산나 |

| 제대 | 안소희 클로틸다 | 이명희 비비안나 | 공승윤 수산나 |
|----|----------|----------|-----------|
| 예물 | 없음 | 초복사 | 엄유상 강예지 |

▪ 독서 순서는 담당이신 김은경 (파울리나) 자매님께 문의해 주세요.

▪ 성주간 전례 안내

1)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 오전 11시

*성지 보호 및 복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교황청으로 보냅니다.

<성주간 전례 봉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